

①호장이 군사들에게 호령해 일시에 ②**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산천이 무너지는 듯하며 사방에 불이 일어나 화광이 충천했다. 이때 박 씨가 계화에게 명해 ③**옥병수**를 던지게 하고, 왼손에 옥화선을, 오른손에 백화선을 들고 오색실로 ④**부적을** 매어 화염 속에 던졌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화염이 ⑤**도리어** 호진 쪽으로 향했으며, 호국 군사들 중 화염에 싸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더라. 용골대가 크게 놀라 ⑥**급히 군사들을 물러나게 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나온 뒤 칼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통 소리 한 번에 조선의 항복을 받았는데, 어찌 ⑦**일개 아녀자**가 불쌍한 동생을 죄 없이 죽이고 십만 대병마저 거의 죽였으니, 더할 나위 없이 분하다. 무슨 면목으로 우리 대왕과 왕비를 뵈겠는가?”

이에 한우가 ⑧**통곡**하고는 ⑨**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했다.

“아무리 해도 ⑩**저 여자**를 당해 낼 수가 없구나. 저 여자에게 ⑪**복수하기는커녕 항복도 받을 수가 없으니**, ⑫**이제라도** 급히 행군해 ⑬**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호군들이 장안의 ⑭**미색**들과 왕비와 세자 삼 형제를 강제로 이끌고 호국으로 떠나려 하니, 온 백성의 ⑮**통곡 소리**가 장안에 진동했다. 이때 박 씨가 계화에게 명령해 ⑯**적진**을 향해 크게 외치게 했다.

“무지한 오랑캐 놈은 들어라. 너희 왕이 무도해 너 같은 짓비린내 나는 놈을 보내 존귀한 ⑰**우리나라**를 침략하니,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패배했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느냐? 만일 우리 왕비를 데려가면 내가 너희를 모조리 죽일 것이니, 목숨을 보전하려거든 모셔 가지 마라.”

호장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⑱**네** 말이 하찮고 가소롭도다. 우리가 이미 네 국왕에게 ⑲**항서**를 받았으니, ⑳**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마음이다. 그러니 ㉑**그런 말**은 하지도 마라.”

이렇듯 호장이 수없이 능욕하니, 계화가 또다시 외쳐 말했다.

“너희가 한사코 내 말을 거역하려 한다면 우선 내 제주부터 보아라.”

계화가 말을 마치고 무슨 진언을 두어 번 외우니, 갑자기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급한 큰비가 억수로 쏟아져 천지가 아득했다. 또한 눈보라가 크게 일어나고 우박이 담아 붓듯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소나기와 우박이 얼음이 되어 호적의 말굽은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호장이 그제야 ㉒**깨닫고** 말했다.

“당초 군사를 일으킬 때 우리 ㉓**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조선에 나가거든 우의정 집 후원은 절대 범하지 말라.’ 하셨다. 그런데도 짐짓 깨닫지 못하고 순간의 분노만 생각하다가 왕비의 분부를 거역해 화를 당하여 십만 대병을 태반이나 죽이고 죄 없는 동생을 죽였구나. 무슨 면목으로 대왕과 왕비를 뵈겠는가? 상황이 다급하게 되었으니, 지금이라도 박 씨에게 비는 것이 좋겠소.”

호장들이 말에서 내려 스스로 손을 묶고 팔문진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애걸하며 말했다.

“소장들이 군사를 일으켜 조선에 들어와 사방을 돌아다녔으되 한 번도 무릎을 꿇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신명하신 ㉔박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그리고는 또 애걸했다.

“부인의 말씀이 ㉔왕비는 데려가지 말라 하시니, ㉕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이제 길을 열어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소서.”

호장들이 여러 번 간절히 애걸하니, 박 씨가 그제야 주렴을 걷고 크게 꾸짖어 말했다.

“너희를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 없애려 했으나, 내가 부득이 천명에 따라 너희를 용서하노라. 우리나라가 불행해 너희에게 강화를 당했으나, 무엇 때문에 우리 왕비를 모셔 가려 하느냐? 너희 말대로 왕비는 모셔 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를 모셔 간다고 하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거니와 부디 조심해서 모시고 가라. ㉖나는 여기 앉아서도 만 리 밖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불편하게 모시면 내가 신장을 보내 너희 왕과 죄 없는 백성을 모두 함몰하겠노라. 부디 내 말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명심하기 바라노라.”

[중략 부분 줄거리] 박 씨는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보내며 의주에 있는 임 장군을 만나고 가라고 명령한다. 마침 ㉗도성의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오던 임 장군은 호장들과 호국 군대를 만나게 되고 임 장군은 호국 군대를 크게 무찌른다.

이때 임 장군은 호국 장졸들을 단칼에 무찌르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는데 사자가 와서 임금의 전교를 드렸다. 장군이 ㉘북향 사배하고 받들어 보니 이러했다.

“오호라, 국운이 불행해 모월 모일에 호병이 달려들어 도성을 습격함에 짐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했으나, 호국의 십만 대병이 들어와 호장의 호통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강화를 했으니, ㉙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하늘이 정한 운명인 듯하도다. 매우 분하고 한심하나 이미 끝난 일이다. 경의 충성이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경은 길을 열어 호장을 돌려보내라.”

임 장군이 다 읽고 나서 칼을 던지고 대성통곡하며 말했다.

“아아, 슬프다. 조선 만고의 소인이 국권을 농락해 이처럼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명천은 어찌 이토록 무심하시오?”

통곡을 그친 장군이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다시 칼을 들고 나가 호장을 사로잡아 땅에 엎어뜨리며 꾸짖어 말했다.

“㉚네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하게 된 데 우리 조선의 도움을 받은 줄도 모르고 무지한 오랑캐 놈이 이처럼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를 침략했으니, 네놈들을 씨도 없이 다 죽이려 했으나 이미 강화를 맺었기에 왕명을 거역하지 못해 너희를 살려 보내노라. 그러니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셔 가서 착실하게 공경하라.”

임 장군은 한 번 통곡한 뒤 문을 열어 호국 군사들을 내보냈다.

- 작자 미상, 「박씨전」

1. 다음은 ㉑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술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호국)의 (장수)

2. ②를 직접 수행한 사람과 수행을 명령한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 서술하세요.

직접 수행한 사람	호국(청나라)의 군사들
수행을 명령한 사람	호장

3. ③과 ④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③과 ④를 던진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 서술하세요.

③	계화
④	박 씨

(2) ③과 ④를 던진 결과를 서술하세요.

호국의 진영에서 지른 불이 방향을 바꿔 호국의 진영을 향하게 되었다.

4. ⑤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3음절로 서술하세요.

오히려

(2) 글쓴이가 ⑤와 같이 서술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호국의 진영에서 질러 호국 진영 외부를 향하던 불이, 박 씨가 도술을 부린 이후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호국 군사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호국의 진영을 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5. 용골대가 ⑥과 같이 행동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군사들이 화염에 의해 추가로 부상당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6. ⑦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박 씨

7. ⑧과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⑧에 담긴 심리)를 서술하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박 씨를 제압하거나 박 씨를 막을 수 없어 절망감을 느끼고, 박 씨로 인해 수많은 호국의 군사가 죽어 슬픔과 분노를 느끼기 때문이다.

8. ⑨가 '어느 나라의' 장수들인지 서술하세요.

호국(청나라)

9. ㉑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박 씨

10. ㉒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다음은 ㉒을 바꾸어 쓴 문장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복수는 (물론)이고 항복을 받을 수도 없으니

(2) 다음은 ㉒에 담긴 한우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복수를 하는 것보다 항복을 받는 것이 더 (쉽다.) 하지만 둘 중 더 (쉬운) (항복)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11. ㉓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 ㉓이 가리키는 국가를 서술하세요.

호국(청나라)

(2) '어디'를 떠나 ㉓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서술하세요.

조선

12. ㉔에 담긴 한우의 생각에 대해 서술하세요.

지금보다 더 일찍 조선을 떠나 고국 호국으로 떠났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떠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㉕의 사전적 의미를 서술하세요.

아름다운 여자.

14. ㉖의 원인을 서술하세요.

장안의 미색들, 왕비, 세자 삼 형제가 호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백성들이 슬퍼했기 때문이다.

15. ㉗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호국(청나라)의 진영

16. ㉘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조선

17. ㉗이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계화

18. 다음은 ㉘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조선)의 왕은 (호국)의 왕에게 항복한다.

19. ㉙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서술하세요.

(너희) 왕비를

20. ㉚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왕비를 호국으로 데려가지 말라는 말

21. ㉛의 대상(‘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인지)을 서술하세요.

우의정 집 후원을 건드리지 말라던 호국 왕비의 말

22. 호장들이 ㉜과 같은 호칭을 사용한 이유를 서술하세요.

살아서 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박 씨에게 용서를 비는 상황에서, 박 씨를 높이는 호칭을 사용해 박 씨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이다.

23. ㉝와 ㉞가 가리키는 대상을 서술하세요.

㉝	호국의 왕비
㉞	조선의 왕비

24. ㉟의 의미를 서술하세요.

조선의 왕비를 호국으로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25. 다음은 ㊱에 담긴 박 씨의 입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빈 칸을 채우세요.

나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호국)으로 (세자)를 데리고 가는 과정을 지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세자)를 불편하게 한다면 바로 알 수 있다.

26. ㊲의 내용을 서술하세요.

호국 군사들이 조선의 왕비는 풀어줬지만 세자들을 호국으로 데리고 간다.

27. ㉔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하세요.

조선의 왕은 임 장군보다 북쪽에 있었다.

28. ㉔에 사용된 표현법과 ㉔의 실질적인 의미를 서술하세요.

표현법	설의법
실질적 의미	슬프다.

29. ㉓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서술하세요.

배은망덕